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와 베트남의 산업구조 및 지역 변화

구양미*

Korean Enterprises'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Vietnam and Changes in Vietnamese Industrial Structure and Regions

Yangmi Koo*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기업의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증가 현상을 분석하고, 베트남의 산업구조 및 지역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0년대 초반부터 경제 및 산업 협력이 증진되었다.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섬유·의복 가공의 경공업 중심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점차 전기전자 조립산업 중심으로 변화해 왔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대도시인 하노이와 호치민, 그리고 이들 도시 주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투자는 2차산업 비중이 증가하고 기술집약산업이 발전하는 등의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하노이와 호치민 대도시 주변부로의 산업 이전과 대도시권 확장 등 지역 변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상호보완적 협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지만, 베트남에 대한 투자 부문 다각화와 지역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해외(외국인)직접투자, 베트남, 산업구조, 섬유·의복, 전기전자, 하노이, 호치민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crease of Korean enterprises' investment to Vietnam and the impact on industrial structure and regional changes in Vietnam. The data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say that the economic and industrial cooperation of two countries has been promoted since the early 1990s. The trend of Korean investment to Vietnam has been changed from the light industries of textile and garments to the assembly of electrics and electronics since the mid 2000s. Massive investment of foreign companies including Korean enterprises has been focused on major cities of Ha Noi and Ho Chi Minh including their urban fringes. This makes the industrial structural changes with increasing the ratio of the secondary industry and developing technology-intensive industries. In addition, it helps to relocate industries to urban fringe of Ha Noi and Ho Chi Minh expanding metropolitan areas. Although complementary cooperation of Korea and Vietnam continues, it is necessary for diversification of investment sectors and regions.

Key Words : (outward/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Vietnam, industrial structure, textile and garments, electrics and electronics, Ha Noi, Ho Chi Minh

이 논문은 2014년도 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계열 해외연수 지원사업'의 후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물임.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부교수;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겸무연구원;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겸무연구원(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Adjunct Researcher, The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SNU; Adjunct Researcher, SNU Institute on Aging), yangmi@snu.ac.kr

1. 서론

한국과 베트남은 역사적, 경제적으로 특수하면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960~70년대 베트남전쟁 파병은 결과적으로 한국경제 회복과 성장에 큰 기여를 했고, 1992년 한국과 베트남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 한국의 베트남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가 증가하였다. 2000년대 베트남에는 세계적 다국적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였고, 삼성, LG 등 한국의 대기업 외에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였다. 이에 베트남은 한국의 제조업 해외투자대상국 2위를 기록하고 있고, 2014년부터 한국이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 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양국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 한편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상당수가 베트남인으로,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10% 정도가 베트남 출신이고, 한국행 결혼이주여성 중 누적 체류현황으로 중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한류가 유행하고 있고, 양국의 관광산업이 발전하는 등 문화 교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 및 문화 교류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양국의 항공 노선이 급격히 증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베트남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긴밀하고 특수한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특히 경제적 관계와 협력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베트남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증가 현황을 살펴보고, 베트남의 산업구조 및 지역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해외투자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 한국 경제에 있어 베트남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베트남의 산업구조, 외국인직접투자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지역별 자료를 이용해 고찰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베트남의 경제와 산업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이를 지역별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것은 많지 않았다¹⁾. 또한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있었으나 세부 산업별, 지역별 자료를 이용하여 베트남 전역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분석

을 시도한 것은 미비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가 베트남의 산업과 지역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 향후 한국-베트남 경제협력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해외직접투자와 베트남 경제성장

기업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수출, 라이선싱, 해외직접투자 중 해외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기업 활동의 중심이 무역에서 해외직접투자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인 Dunning(1998)의 절충이론(eclectic paradigm)을 살펴보면, 기업의 해외투자 활동을 3가지 이점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기업특유의 이점(ownership-specific advantage), 시장 내부화 이점(internalization advantage), 입지특유의 이점(location-specific advantage)이다. 핵심은 세가지 이점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수출이나 라이선싱 보다는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점차 입지특유의 이점 측면에서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나 지역정책, 클러스터가 제공하는 이점 등 창출되는 자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Dunning, 1998).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지와 주변부 지역의 발전은 오래된 연구주제로(Dawley, 2010; Menghinello *et al.*, 2010), 1960~70년대 분공장 연구에서는 외부 소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최근의 GPN 연구에서는 '전략적 결합(strategic coupling)'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 국가 내에서도 다국적기업 활동과 지역의 연계에 따라 지역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짐을 밝히기도 하였다(Yang, 2009). 투자를 유치하는 지역의 입장에서 생산의 현지화가 전후방 공급자 연계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발전의 길이 열리기도 하지만, 지역이나 국가가 특정 다국적기업이나 해외 선진국에 종속될 우려가 발생하기도 한다.

베트남은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1986년 제6차 공산당대회에서 ‘도이모이(Doi Moi, 쇄신)’ 정책을 채택하였고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1987년 외자유치법(Foreign Investment Law)을 공포하여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에서 전환경제 체제로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전면적 개혁을 수행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2005년 베트남 국회는 기존의 회사법, 국영기업법, 외자유치법을 통합한 새로운 회사법(Enterprise Law) 개정을 하였고 이는 해외기업의 투자가 더욱 급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해외자본 유치는 경제 구조재편, 일자리 창출, 노동생산성 향상, 현대적 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해 베트남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Vietnam, 2014).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 도입을 통한 베트남의 외생적 경제발전 전략에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베트남 해외직접투자와 협력 관계는 1992년 양국의 수교를 계기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지현철·이승철, 2007).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인건비가 상승함으로써 생산비용이 증가하였고 이것은 제조업 생산기지 이동의 요인이 되었다. 처음에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유사한 중국으로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였는데, 점차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외자기업 투자법 강화, 중국 정부의 첨단산업 집중 정책 등으로 투자지역의 변화가 요구되었고, 이에 대안으로 베트남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김희준, 2009).

한편, 베트남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여러 연구와 문헌에서는 베트남의 투자 장점을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내수시장 진출 가능성, 풍부한 천연자원과 농산물, 한국과의 문화적 유사성 등으로 분석하고 있고, 반면 베트남의 단점과 위험성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숙련된 고급인력의 부족, 원부자재 및 부품소재산업의 기반 미비,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불투명한 행정절차와 관료주의 등으로 설명하였다(김정호, 2005; 박동욱, 2008; 김희준, 2009; 삼성경제연구소, 2013; KOTRA, 2014b).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서는 베트남 전반적인 지역별 자료의 시간적·공간

적 분석과 해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향이 있다. 베트남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설명을 하거나,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부문 중심의 분석, 특정 소규모 단위 지역 연구에 그치고 있다. 베트남 해외직접투자와 산업입지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과 해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지역별 자료의 시간적·공간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3. 한국의 해외투자 현황과 시기별 변화 특성

한국 해외투자의 투자대상국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2월말까지 누적 투자금액²⁾ 기준으로 미국(22.1%), 중국(16.0%), 홍콩(5.5%), 베트남(4.3%) 순이다(표 1). 상위 10개국에 전체 투자의 약 67.5%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투자의 약 80%가 18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 해외투자의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표 2), 1980년대까지 미국에의 투자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인도네시아, 캐나다,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부터 중국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어 미국(26.8%)에 이어 17.6%로 2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 시기에 베트남에 대한 투자도 시작되어 2.7%로 6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22.1%)에 대한 투자가 미국(19.1%)을 앞지르게 되었다. 이 시기에 베트남에 대한 투자도 많아져서 4.3%로 4위를 차지하게 된다. 한편 2010년 이후에는 중국(12.4%)에 대한 투자 비중이 낮아지고 미국(23.1%)에 대한 투자비중이 커져서 순위가 역전된다. 케이만군도를 제외하면 베트남은 4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연도별 자료를 살펴보면, 편차가 심하지만 대체로 1990년대 후반 미국의 비중이 높았다가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다시 미국의 비중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 중반에 5% 이상을 넘었다가 2000년대 후반 이후에 약간 감소했는데 2013

표 1. 한국 해외투자의 투자대상국 현황

순 위	전체 해외투자					제조업 해외투자				
	국가	신고건수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국가	신고건수	신규 법인수	투자금액	
				(백만불)	비중(%)				(백만불)	비중(%)
1	미국	29,591	13,596	77,997	22.10	중국	40,787	17,918	43,464	36.99
2	중국	56,079	26,303	56,451	16.00	미국	8,014	2,785	14,772	12.57
3	홍콩	6,078	2,063	19,538	5.54	베트남	9,589	2,993	9,249	7.87
4	베트남	13,875	4,738	15,266	4.33	홍콩	2,008	598	5,127	4.36
5	케이만군도	899	273	14,523	4.12	인도네시아	3,413	1,107	4,625	3.94
6	오스트레일리아	1,791	692	12,153	3.44	브라질	555	121	3,842	3.27
7	영국	1,204	409	11,306	3.20	인도	1,588	470	3,667	3.12
8	네덜란드	835	214	10,857	3.08	말레이시아	845	334	2,495	2.12
9	캐나다	1,622	669	10,320	2.92	멕시코	795	217	2,335	1.99
10	인도네시아	6,064	1,990	9,621	2.73	필리핀	1,757	719	2,326	1.98
전체		171,167	69,580	352,909	100.00	전체	83,558	32,106	117,494	100.00

주: 순위는 2016년 12월 말까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누적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함. 전체 해외투자 대상국 11~20위는 싱가포르, 일본, 브라질, 말레이시아, 멕시코, 독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아일랜드 순으로 나타남. 제조업 부문 11~20위는 네덜란드, 일본, 태국, 러시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독일, 체코, 싱가포르, 영국 순으로 나타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stats.koreaexim.go.kr/odisas.html>).

년 이후 다시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 해외투자의 경우만 살펴보면, 2016년 12월 말까지 누적 투자금액 기준으로 중국이 약 37%를 차지하고 이어 미국(12.6%), 베트남(7.9%), 홍콩(4.4%) 순이다(표 1). 상당수의 제조업 투자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시기별로 투자대상국 변화를 살펴보면(표 3), 1980년대까지는 60% 이상이 미국, 캐나다의 북미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국 투자 26.4%를 차지하면 1위를 차지하였고, 이어 비슷한 수준으로 2위를 미국(23.9%)이 차지하였다. 2000년대에는 중국이 45.4%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면서 한국의 제조업 해외투자의 절반 정도가 중국에 집중되게 되었다. 이에 2위 미국은 비중이 감소했지만, 베트남은 투자 비중이 증가하면서 3위로 부상하게 되었다. 2010년 이후 여전

히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비중이 감소했고, 반면 베트남이 미국을 앞지르며 10.5%로 2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해외투자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특히 1990년대 이후 중국에 대한 제조업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베트남이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제조업의 경우 미국을 추월하여 2위를 차지하는 등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입장에서 한국은 해외투자 투자모국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두 나라 간의 경제협력 관계가 긴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2. 한국 해외투자의 시기별 투자대상국 변화

시기	1980년대이전(~1989년)			1990년대(1990~1999년)			2000년대(2000~2009년)			2010년대(2010~2016년)		
순위	국가	투자금액(백만불)		국가	투자금액(백만불)		국가	투자금액(백만불)		국가	투자금액(백만불)	
1	미국	719	29.48%	미국	7,570	26.80%	중국	24,868	22.06%	미국	48,024	23.09%
2	인도네시아	294	12.06%	중국	4,970	17.60%	미국	21,544	19.11%	중국	25,871	12.44%
3	캐나다	266	10.90%	홍콩	1,584	5.61%	홍콩	8,231	7.30%	케이만군도	12,320	5.92%
4	홍콩	141	5.80%	인도네시아	1,483	5.25%	베트남	4,893	4.34%	오스트레일리아	10,126	4.87%
5	오스트레일리아	132	5.41%	영국	1,281	4.54%	네덜란드	4,457	3.95%	베트남	9,556	4.60%
6	네덜란드	69	2.83%	베트남	769	2.72%	캐나다	3,304	2.93%	홍콩	9,511	4.57%
7	파나마	56	2.28%	인도	723	2.56%	영국	3,121	2.77%	영국	6,867	3.30%
8	싱가포르	50	2.04%	독일	674	2.39%	일본	2,615	2.32%	캐나다	6,385	3.07%
9	일본	43	1.76%	싱가포르	545	1.93%	싱가포르	2,462	2.18%	네덜란드	5,998	2.88%
10	말레이시아	33	1.36%	폴란드	526	1.86%	버뮤다	2,376	2.11%	싱가포르	5,971	2.87%
전체	전체	2,440	100.00%	전체	28,243	100.00%	전체	112,725	100.00%	전체	207,948	10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stats.koreaexim.go.kr/odisas.html>).

표 3. 한국 제조업 해외투자의 시기별 투자대상국 변화

시기	1980년대이전(~1989년)			1990년대(1990~1999년)			2000년대(2000~2009년)			2010년대(2010~2016년)		
순위	국가	투자금액(백만불)		국가	투자금액(백만불)		국가	투자금액(백만불)		국가	투자금액(백만불)	
1	미국	302	41.93%	중국	3,915	26.40%	중국	19,635	45.42%	중국	19,907	33.90%
2	캐나다	133	18.43%	미국	3,548	23.92%	미국	5,677	13.13%	베트남	6,159	10.49%
3	인도네시아	69	9.57%	인도네시아	1,057	7.13%	베트남	2,541	5.88%	미국	5,245	8.93%
4	말레이시아	31	4.30%	인도	646	4.36%	네덜란드	2,085	4.82%	브라질	3,254	5.54%
5	태국	22	3.02%	베트남	549	3.70%	홍콩	2,083	4.82%	홍콩	2,797	4.76%
6	사우디아라비아	18	2.56%	폴란드	465	3.14%	인도	1,067	2.47%	인도네시아	2,580	4.39%
7	영국	11	1.59%	필리핀	403	2.71%	체코	921	2.13%	말레이시아	1,953	3.33%
8	아랍에미리트	11	1.49%	말레이시아	331	2.23%	인도네시아	919	2.13%	인도	1,952	3.33%
9	홍콩	8	1.17%	태국	248	1.67%	슬로바키아	898	2.08%	멕시코	1,822	3.10%
10	과테말라	8	1.16%	영국	246	1.66%	러시아	769	1.78%	필리핀	1,633	2.78%
전체	전체	721	100.00%	전체	14,833	100.00%	전체	43,226	100.00%	전체	58,714	10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stats.koreaexim.go.kr/odisas.html>).

4. 베트남의 산업구조 및 지역별 분석

베트남의 지역(region)을 크게 6개로 구분하면, 홍강 삼각주, 북부내륙 및 산악지역, 북중부 및 중부해안지역, 중부 산악지대, 남동부, 메콩강 삼각주로 나눌 수 있다(베트남 통계청). 지역 내에 주(province)가 속해 있는데 각각 11개, 14개, 14개, 5개, 6개, 13개로 총 63개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 중심지인 수도 하노이(Ha Noi)는 홍강 삼각주에,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Ho Chi Minh)은 남동부에 속해 있다.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살펴보면, 2011년 GDP 성장률이 6.2%였다가 이후 5%대로 약간 감소하였는데, 2015년에 다시 6.7%를 기록하였다. 2011~2015년 5년간 연평균 5.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1차산업이 3.1%, 2차산업이 7.2%, 3차산업이 6.7%로 2차산업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2000년대 보다는 낮지만, 같은 기간(2011~2015년) 세계 연평균 경제성장률 3.4%나 동남아시아 인근 국가인 태국(2.5%), 말레이시아(5.4%), 인도네시아(5.7%)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1인당 GDP는 2010년에 1,273USD이었던 것이 2015년 2,109USD로 증가하였다.

베트남의 산업구조를 분석해보면 전통적으로 1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2, 3차산업 구성비가 증가하면서 산업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구조는 일반적으로 1차, 2차, 3차산업의 구성비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국은 1960년대 1차산업이 60% 정도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2, 3차산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1차산업 5%, 2차산업 25%, 3차산업 70%의 구조를 보인다. 반면 베트남은 1차산업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44%를 차지하고 있고, 2차산업 23%, 3차산업 33%의 구조를 보인다(그림 1). 이것은 한국의 1970년대 중반과 유사한 상황으로 한국과 40년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차산업 중 제조업의 경우만 살펴보면 한국은 90년대 초반에 제조업 비중이 정점을 찍었다가 감소하여 현재 17.3%를 나타내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90년대 초반 8.0%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 15.3%를 나타내고 있어서 제조업 기반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GDP 기준으로는 1차산업 비중이 2010년 18.4%에서 2015년 17.0%로 감소한 것에 비해, 2차산업은 32.1%에서 33.3%로 증가하였고, 3차산업은 36.9%에서 39.7%로 증가하였다(General Statistics Office

표 4. 베트남의 지역별 인구 개요(2015년 기준)

지역(Region)	면적(km ²)	인구(천명)	인구 밀도(명/km ²)	합계 출산율	인구 증가율(%) (2005~2015)	순 이동율(%)	교육받은 취업자 비율(%)
홍강 삼각주(Red River Delta)	21,060.0	20,925.5	994	2.23	10.27	0.0	27.5
북부내륙 및 산악지역(Northern Midlands and Mountain Area)	95,266.8	11,803.7	124	2.69	9.31	-1.9	17.0
북중부 및 중부해안지역(North Central and Central Coastal Area)	95,832.4	19,658.0	205	2.34	5.64	-1.8	19.4
중부 산악지대(Central Highlands)	54,641.0	5,607.9	103	2.26	17.61	-1.1	13.3
남동부(South East)	23,590.7	16,127.8	684	1.63	30.27	9.7	25.3
메콩강 삼각주(Mekong River Delta)	40,576.0	17,590.4	434	1.76	4.34	-5.4	11.4
전체	330,966.9	91,713.3	277	2.10	11.31	-	19.9

주: 교육받은 취업자 비율은 15세 이상 취업자 중 국가교육시스템에서 3개월 이상 교육받은 사람의 비율로 계산함(베트남 통계청).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2005, 2016(<http://www.gso.gov.vn>).

of Vietnam, 2016).

2015년 현재 베트남 전체 402,326개 기업 중 제조업체가 63,251개로 15.7%에 불과하지만, 전체 종사자 12,134,985명 중 제조업 종사자는 5,807,577명으로 47.6%를 차지한다. 제조업 내에서 업종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표 5), 베트남은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인쇄와 같은 경공업 비중이 높고 중화학공업이나

첨단산업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은 음식료와 섬유·의복 비중이 16.7%인데 비해 베트남은 53.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기전자·기계·운송장비 비중이 44.6%인데 비해 베트남은 14.6%에 그치고 있다. 한국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낮고, 제조업 중에서도 경공업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특히 섬유·의복 산업은 베트남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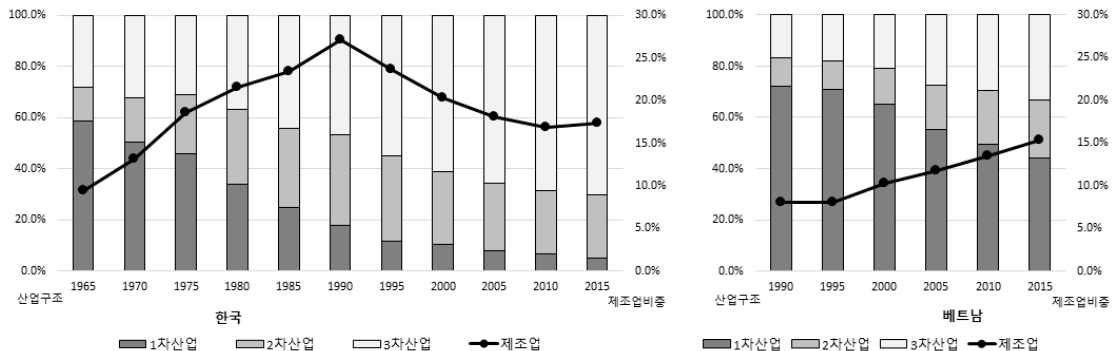


그림 1. 한국과 베트남의 산업구조 변화 비교

주: 산업구조는 취업자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1차산업은 농림어업, 2차산업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업, 3차산업은 서비스업을 의미.

자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http://kosis.kr>);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각년도, employed population data(<http://www.gso.gov.vn>).

표 5. 베트남의 제조업 구조 변화

제조업분류	베트남				한국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5년
음식료	17.53%	14.68%	12.53%	10.09%	8.22%
섬유·의복	40.77%	40.94%	39.50%	43.79%	8.47%
목재인쇄	7.67%	7.25%	5.90%	5.01%	4.75%
석유화학	4.14%	3.06%	2.93%	2.75%	5.15%
비금속	11.21%	11.22%	10.98%	8.96%	9.83%
금속	4.96%	5.34%	6.78%	6.20%	15.42%
전기전자	4.12%	3.99%	6.75%	9.77%	19.85%
기계	1.95%	1.89%	1.23%	1.21%	11.17%
운송장비	3.49%	4.02%	4.18%	3.59%	13.57%
기타	4.14%	7.61%	9.21%	8.63%	3.57%
제조업종사자수(명)	1,597,431	2,893,080	4,441,800	5,807,577	3,957,394

주: 한국은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제조업 종사자수, 베트남은 기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2015, 전국사업체조사(<http://kosis.kr>);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각년도, number of employees in enterprises data(<http://www.gso.gov.vn>).

표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기업체 종사자의 40% 이상이 섬유·복합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또

한 전기전자 산업의 증가도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여타 제조업의 비중이 감소 및 정체됨을 보이는 상황에서

표 6. 베트남의 지역별 기업 개요(2015년 기준)

지역(Region)	기업			종사자			기업의 연평균자본합		
	업체수 (개)	비중 (%)	증가율(%) (2005~ 2015)	종사자수 (천명)	비중 (%)	증가율(%) (2005~ 2015)	금액 (조동)	비중 (%)	증가율(%) (2005~ 2015)
홍강 삼각주(Red River Delta)	127,133	31.61	321.89	3,853.9	32.73	129.52	6,422.4	39.31	978.31
– 하노이(Ha Noi)	91,428	22.73	373.79	2,022.1	17.18	125.63	4,804.6	24.42	1,039.21
북부내륙 및 산악지역(Northern Midlands and Mountain Area)	15,831	3.94	187.99	689.1	5.85	136.14	519.7	3.18	897.41
북중부 및 중부해안지역(North Central and Central Coastal Area)	50,897	12.65	245.93	1,403.3	11.92	102.20	1,190.0	7.28	747.50
중부 산악지대(Central Highlands)	10,460	2.60	218.03	237.8	2.02	47.65	253.4	1.55	528.33
남동부(South East)	167,896	41.74	329.26	4,640.0	39.41	89.40	7,115.0	43.55	672.00
– 호치민(Ho Chi Minh)	136,267	33.88	339.67	2,566.9	21.80	73.91	5,025.4	25.54	738.66
메콩강 삼각주(Mekong River Delta)	29,994	7.46	118.84	949.1	8.06	139.45	836.2	5.12	896.30
전체	402,211	100.00	277.36	11,773.1	100.00	99.68	16,336.7	100.00	641.09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2005, 2016(<http://www.gso.gov.v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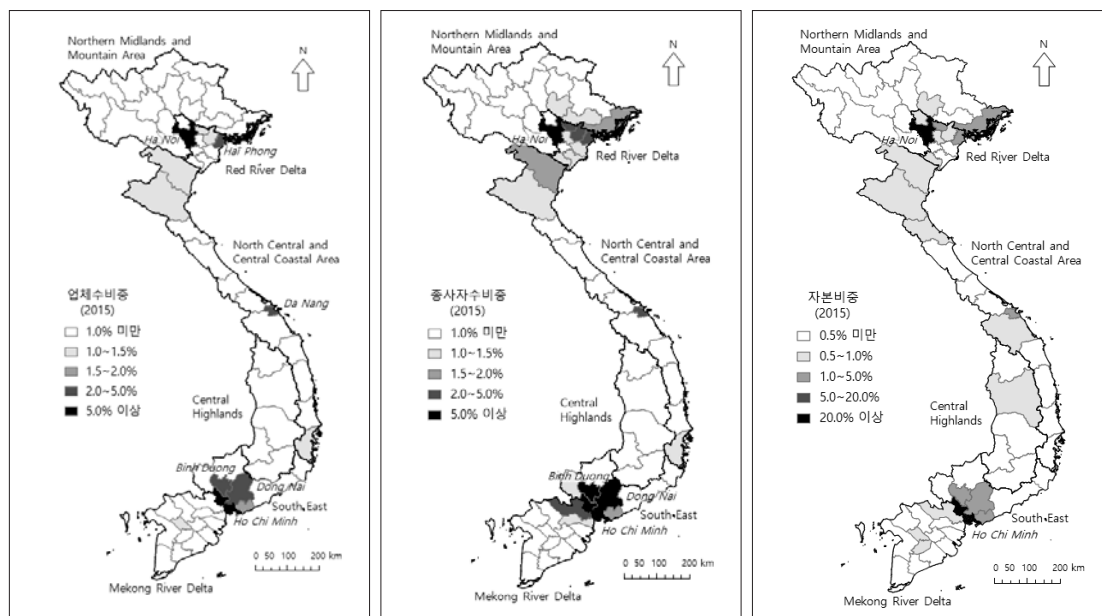


그림 2. 베트남 기업 분포(업체수(좌), 종사자수(중), 기업자본(우))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2016(<http://www.gso.gov.vn>).

도 전기전자 부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기업현황을 지역별로 파악하기 위해 가동 중인 업체수와 종사자수, 기업의 연평균 자본 자료를 분석하였다(표 6). 홍강 삼각주와 남동부 지역은 베트남 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양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 기업의 73.4%, 종사자의 72.1%가 입지해 있으며, 자본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 비중이 더욱 커져서 82.9%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하노이와 호치민에 업체수의 56%, 종사자수의 39%, 자본의 50% 정도가 집중되어 있다(그림 2). 이와 더불어 하노이 주변의 Bac Ninh, Hai Doung, Hai Phong, 호치민 주변의 Binh Duong, Dong Nai, Long An이 주요 산업지역을 이루고 있다.

5. 한국의 베트남 투자 현황과 지역 분석

1)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지역 분포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타이완,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 특히 아시아의 대표적인 개발도상국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7). 북미나 유럽 선진국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같은 아세안 국가 중에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말까지 외국인직접투자의 누적 투자건수와 누적 투자금액 모두 한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투자금액의 1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일본(13.8%), 싱가포르(12.5%), 타이완(11.0%) 순으로 나타난다. 2013년 말까지는 일본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투자금액의 90% 정도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고, 도소매 유통, 물류, 자동차·오토바이 부품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KOTRA, 2014b). 한국은 최근 들어 급증한 삼성, LG 등 재벌 대기업의 투자 증대로 2014년부터 1위를 기록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한국이 투자모국 1위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베트남이 유일하다.

1990년대 이후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그림 3). 1990년대 초반 연간 200건 이하에서 2015년에는 2,000건을 넘었고, 1990년대 초반 연간 20억USD 이하에서 2015년에는 연

표 7.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모국 현황

순위	국가	투자건수	투자금액	
			(백만USD)	비중(%)
1	한국	4,970	45,191	16.03%
2	일본	2,914	38,974	13.83%
3	싱가포르	1,544	35,149	12.47%
4	타이완	2,478	30,997	11.00%
5	영국령버진아일랜드	623	19,275	6.84%
6	홍콩	975	15,547	5.52%
7	말레이시아	523	13,420	4.76%
8	미국	781	11,302	4.01%
9	중국	1,296	10,174	3.61%
10	네덜란드	255	8,265	2.93%
전체		20,069	281,883	100.00%

주: 순위는 2015년 12월말까지 누적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함. 11~19위는 태국, 케이만군도, 사모아, 캐나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스위스, 브루나이 순으로 나타난다.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2016(<http://www.gso.gov.v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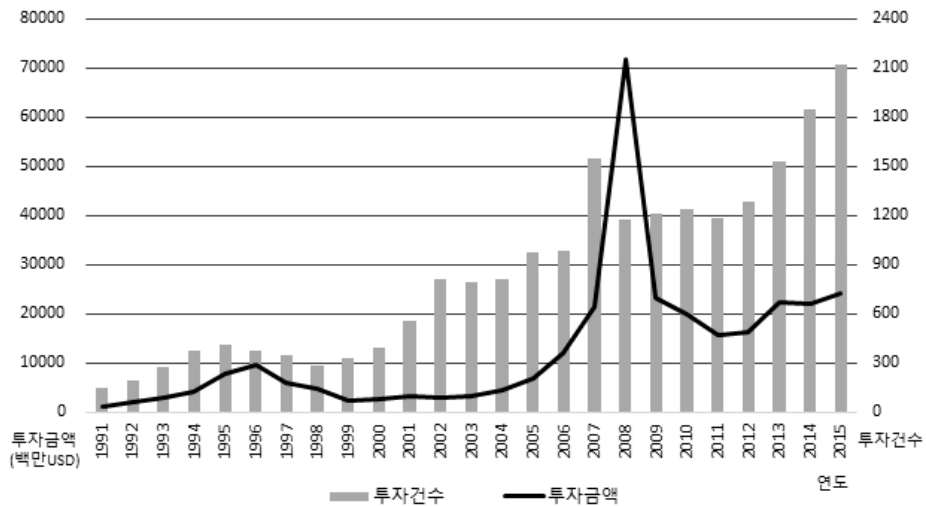


그림 3.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투자건수 및 투자금액 변화

자료: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Vietnam, 2016(<http://www.mpi.gov.vn>).

간 200억USD를 넘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연간 100억USD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2015년 말까지 전체 누적 투자건수 20,069개 중 제조업이 10,764개로 53.6%, 누적 투자금액 2,818.83억USD 중 제조업이 1,627.73억USD로 57.7%를 차지하고 있다(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2016). 투자금액 순으로 보면 뒤이어 부동산 부문 508.96억USD(18.1%), 전기가스수도 125.68억USD(4.5%), 숙박 및 음식서비스업 119.50억USD(4.2%), 건설업 108.94억USD(3.9%) 순으로 나타난다.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제조업 분야가 60% 정도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전기가스수도, 건설 등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베트남 산업 집중이 하노이와 호치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은 양상으로 외국인투자 또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그림 4). 투자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29.3%가 호치민에 집중되어 있고 호치민 인근 Binh Dong 13.6%, Dong Nai 6.7%로 나타나는 등 호치민 주변 산업지역에 전체 투자건수의 53.3%가 집중해 있다. 또한 하노이에 17.8%를 비롯해 인

근 홍강 삼각주 지역에 30.8%가 집중해 있어서 실제 이 두 산업지역에 전체 투자의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자본 비중으로는 호치민과 인근 지역에 43.5%, 하노이와 인근 지역에 28.2%로 이 두 산업지역에 전체 외국인투자 자본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에 따라 베트남 전 산업에서 해외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전체 402,326개 기업 중 해외기업 수는 2.8%에 불과하지만³⁾, 종사자수에 있어서는 28.4%를 차지하고 있다(표 8). 이것은 2000년 11.5%에서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여성 인력을 살펴보면, 전체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이 45.1%로 나타나는데, 여성 인력 중 해외기업에서 일하는 비중이 42.7%를 차지한다. 특히 해외기업 종사자의 67.8%가 여성인 것은 베트남의 여성 노동력을 이용하는 해외기업들이 상당함을 시사한다. 한편 베트남의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표 8), 2015년 기준 6,289천동으로 한화로 약 127,000원이다. 2010년 4,094천동이었던 것에 비하면 임금상승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⁴⁾. 베트남은 지역별 임금차이도 크게 나타나는데, 홍강 삼각주 지역이 평균 6,184천동, 남동부 지역이 평균 6,547천동인데 비해 그 외 지역은 5,000천동 이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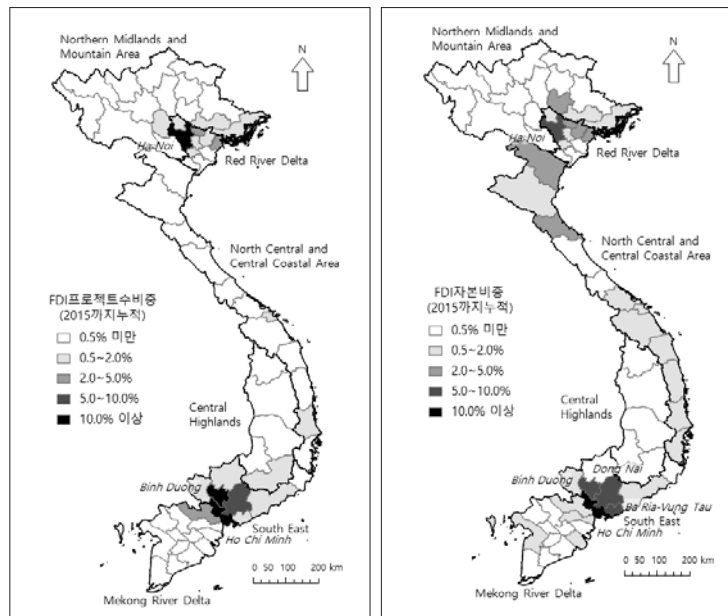


그림 4.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 분포(투자건수 비중(좌), 투자금액 비중(우))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2016(<http://www.gso.gov.vn>).

표 8. 베트남 기업체 유형별 종사자 비율

기업유형	기업체 종사자				2015년 월평균임금 (천동)	여성 종사자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5년	종사자 중 여성비율
국영기업	59,05%	38,99%	17,20%	12,67%	9,245	8,20%	29,21%
비국영기업	29,43%	42,90%	60,87%	58,91%	5,327	49,10%	37,59%
해외기업	11,52%	18,11%	21,93%	28,42%	6,955	42,70%	67,76%
(100% 해외자본)	(8,09%)	(14,99%)	(19,35%)	(26,07%)	-	(40,30%)	(69,74%)
종사자수(천명)	3,537,0	5,770,2	9,830,9	12,135,0	6,289	5,473,3	45,10%

주: 1,000동(VND)≒49,5원.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각년도(<http://www.gso.gov.vn>).

2) 한국의 베트남 해외직접투자의 업종 및 지역 분석

한국의 베트남 투자동향을 살펴보면, 섬유·의복·하청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집약적 부문에서 시작하여 건설업, 유통업 부문으로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산업의 제조활동과 같은 기술집약적 부문으로 다변화되

고 있다.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1986년 임가공 형태로 섬유·봉제 부문에서 시작되었으나, 공식적인 투자는 1992년 한국-베트남 수교 후 꾸준히 증가하였다(지현철·이승철, 2007).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와 2000년대 후반 세계적 경제위기를 겪으며 약간 위축되긴 했으나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4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2016년 12월말까지 누적 투자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베트남 투자를 살펴보면, 제조업

이 60.6%를 차지하고, 이어 광업(14.4%), 부동산업 및 임대업(7.2%), 금융 및 보험업(4.4%), 도매 및 소매업(3.8%), 건설업(3.1%), 숙박 및 음식점업(3.0%) 순이다(그림 5). 최근의 투자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0년~2016년 기간 동안의 누적 투자금액만 살펴보면, 제조업의 비중이 더욱 증가하여 64.4%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업(11.8%), 도매 및 소매업(5.5%), 부

동산업 및 임대업(5.3%), 금융 및 보험업(4.9%) 순으로 나타난다.

제조업 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그림 6), 2016년 12월말까지 누적 투자금액 기준으로 전기전자 31.4%, 섬유 의복 28.4%, 기계(운송장비) 10.2%, 철강 10.1% 순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제조업 중에서도 섬유 의복과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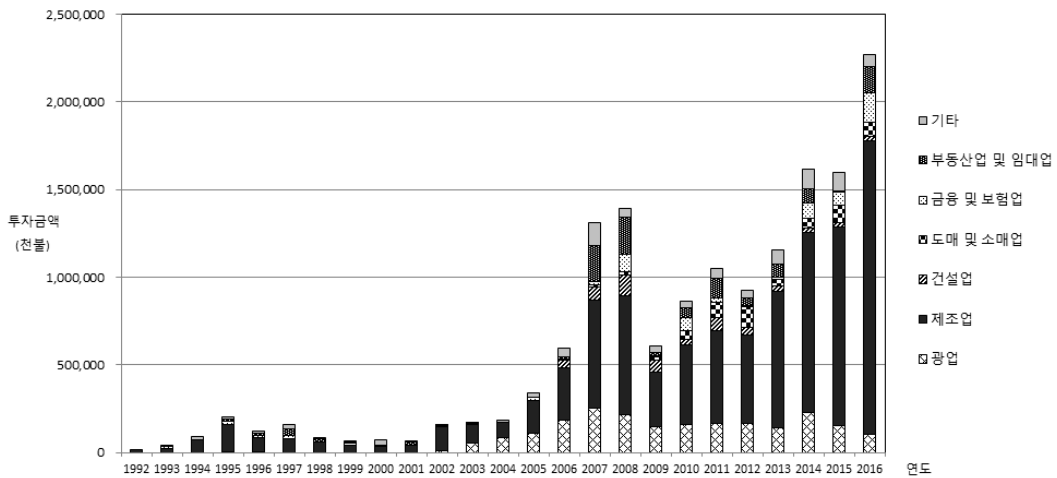


그림 5. 한국의 베트남 업종별 투자금액 변화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stats.koreaexim.go.kr/odisas.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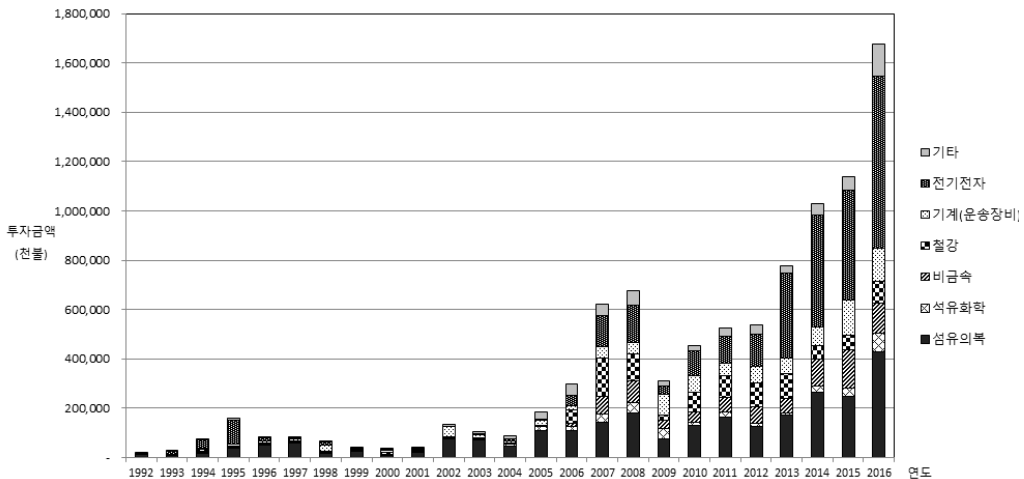


그림 6. 한국의 베트남 제조업 업종별 투자금액 변화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http://stats.koreaexim.go.kr/odisas.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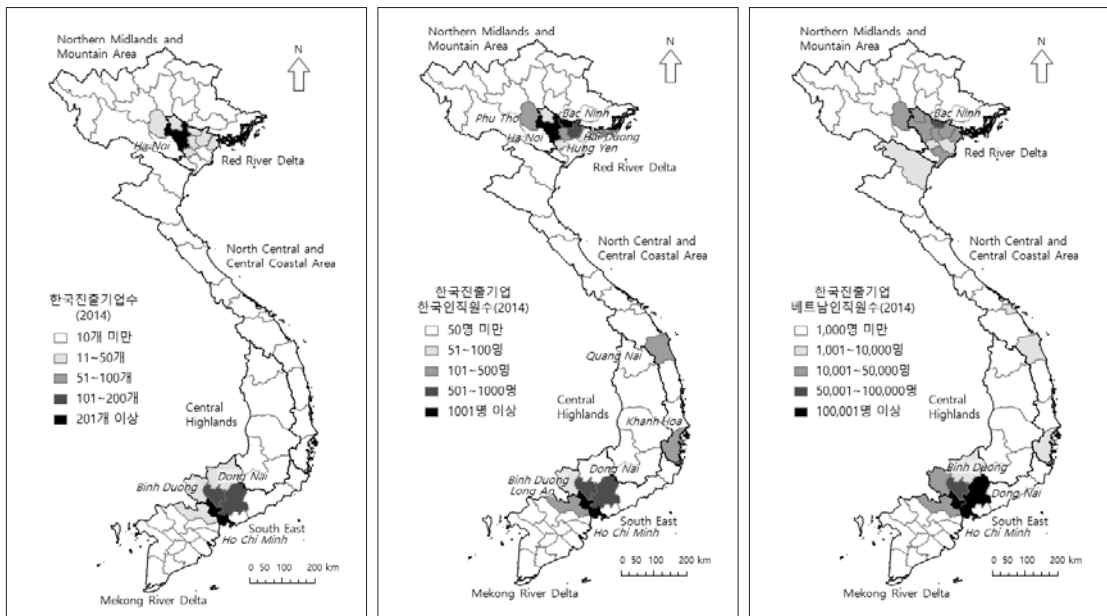


그림 7.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현황(업체수(좌), 한국인직원수(중), 베트남인직원수(우))

자료: KOTRA, 2014a.

으로 이루어져 왔다. 1999년까지는 섬유·의복·전기전자 비중이 41.9%:32.2%였던 것이 2000년~2009년 기간 동안에는 33.7%:15.5%로 여전히 섬유·의복이 우세하지만 전기전자 업종 비중이 하락하면서 투자가 철강(14.6%), 기계(운송장비)(11.6%) 등 다른 제조업종들로 확장되었다. 2010년~2016년 기간 동안에는 전기전자 업종의 투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24.9%:37.2%로 나타나면서 섬유·의복과 전기전자의 비중이 역전되었다. 오랜 기간 동안 섬유·의복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 중심에서 최근 몇 년 간 급격히 전기전자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순위가 역전되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약 4,000개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기업 전수데이터가 수집된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발간한 <2014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중 베트남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1,325개사 중 제조업체가 64.9%, 건설업 8.5%, 도소매업 7.8% 정도로 나타난다. 입지를 살펴보면 하노이에 19.1%(253개사), 호치민에 36.3%(481개사), 호치

민 인근 Binh Duong, Dong Nai에 23.1%(306개사)가 집중해 있다(그림 7). 이는 전체 베트남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 양상과 유사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직원이 약 7,800명, 베트남인 직원이 약 590,000명인데 실제 데이터에 누락된 업체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한국 업체들을 고려해 볼 때 고용창출 효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3) 베트남의 수출 증가와 한국-베트남의 경제 및 산업 상호의존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투자금액의 증가와 함께 기업체 종사자 중 해외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20%를 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의 저렴한 여성노동력을 이용하려는 섬유·의복 업종 투자는 1990년대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었고, 이것은 베트남의 제조업에서 섬유·의복 종사자가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큰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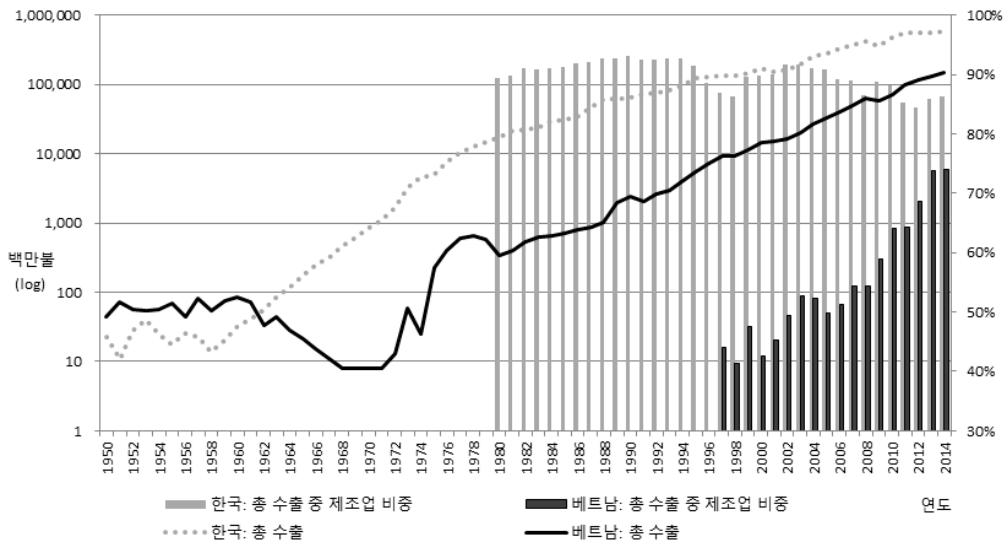


그림 8. 한국과 베트남의 수출액(제조업 비중) 변화 비교

주: 그림 왼쪽 수출량은 로그값을 취한 그래프임.

자료: WTO, 국제무역통계(<http://www.wto.org/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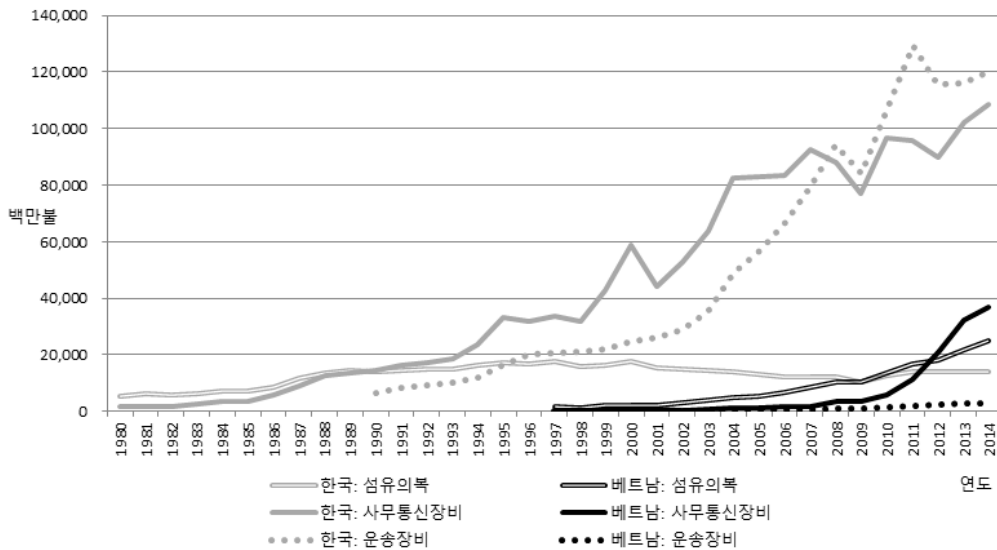


그림 9. 한국과 베트남의 주요 업종별 수출액 변화 비교

자료: WTO, 국제무역통계(<http://www.wto.org/statistics>).

을 미쳤다. 섬유·의복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2000년대 중반 이후 전기전자, 기계(운송장비) 부문 조립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시

작했고, 한국의 베트남 투자 역시 이러한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베트남 제조업에서 전기전자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가까이 되었고, 특히

2010년 이후 한국의 베트남 투자금액은 전기전자가 37.2%를 차지하여 섬유·의복을 넘어서게 된다.

베트남의 산업구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차 2차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산업화의 길을 가고 있다(그림 1). 이 중 제조업구조를 살펴보면 섬유·의복의 중요성은 여전하지만 전기전자, 기계(운송장비)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표 5).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외국인투자 유치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진출과 투자확대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출자료를 통해 살펴보면(그림 8), 1950년대까지는 한국이 베트남보다 수출액에 있어 뒤처지다가 이후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베트남은 1960년대~1970년대 초반까지 수출이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현재 수출액은 한국이 5,268억USD, 베트남이 1,621억USD로 베트남은 한국의 30% 수준이다. 한국은 총 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였다가 2010년 중반부터 약간 하락하여 85% 안팎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베트남은 1997년 44.0%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74.0%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가 본격화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했고, 특히 한국 대기업들의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진 2010년대부터 급증하였다.

주요 업종의 수출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9), 한국은 전기전자(사무통신장비)와 기계(운송장비) 부문이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은 2011년까지 섬유·의복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위를 점하였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전기전자(사무통신장비) 부문이 2012년에는 섬유·의복 수출액을 넘어서기 시작하였다. 2014년 수출액을 보면 섬유·의복 248억USD, 전기전자(사무통신장비) 368억USD로 전기전자가 섬유·의복의 1.5배 정도로 나타난다. 이것은 한국을 비롯한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큰 역할을 한 것인데, 일례로 2009년 삼성전자 휴대전화공장이 가동을 시작한 이후 삼성전자는 베트남 국가 총 수출액의 약 25%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2년 Bac Ninh에 위치한 공장만으로 126억USD를 수출하여 베트남 총 수출의 11%를 담당하며 베트남 전체 매출순위 4위를 기록하고 있다(삼성전자 관

계자 인터뷰).

한국 기업들은 1990년대부터 국내에서의 제조 생산성이 맞지 않아 점차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하였고,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해외직접투자 증가가 이를 대표한다. 그러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른바 차이나리스크가 대두되면서 포스트차이나(post-China)로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베트남의 수출 증가와 산업구조 변화는 한국 등 다국적기업의 투자 영향이 크고, 특히 전기전자 업종의 수출의 급격한 상승은 이들 기업들의 수출액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외국인직접투자와 베트남 산업 지역의 변화

1990년대 한국의 많은 섬유·의복 업체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건설하였고, 이 시기의 투자는 주로 베트남 남부 호치민과 인근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이 당시에는 중소기업 중심의 소규모 투자가 많았다(김희준, 2009). 그러던 것이 2008년부터 삼성전자가 베트남 북부 하노이 인근 Ban Ninh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여 가동하면서 인근 산업단지에 협력업체들이 동반 진출하게 되었다. 삼성전자는 2014년에 인근 Thai Nguyen에 추가로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고 가동하면서 하노이 인근 북부지역에 거대한 생산단지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북부지역 투자에는 베트남 정부의 하노이와 북부지역 개발정책의 힘이 컸고, 중국과의 접근성도 영향을 주었다(KOTRA, 2014b). LG전자 역시 하노이 인근 Hai Phong, Thanh Hoa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면서 북부 홍강 삼각주 지역의 발전이 더욱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이 지역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고도화에 한국기업들의 투자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지역 산업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베트남의 대표적 제조업종이자 한국 및 여타 해외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섬유·의복과 전기전자 업종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000년과 2013년의 지역별, 세부산업별 업체수와 종사자수 데이터를 구득

하여 지역별 비중과 입지계수 변화를 분석하였다. 지역별×산업별 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서 베트남 통계청에 요청하여 별도로 구득하였다. 2000년 자료는 2000년대 이전 베트남 해외직접투자와 산업 현황이 반영되어 있고, 2013년 자료는 외국인직접투자가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진 2000년대 중반 이후의 현황이 반영되어 있다.

먼저 섬유 의복 업종의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10), 2000년에는 북부의 하노이(비중 9.4%, 입지계수 0.61), Hai Phong(8.0%, 1.84), 남부의 호치민(42.9%, 1.74), Bin Duong(7.6%, 1.67), Dong Nai(9.9%, 1.82) 지역에 섬유 의복 산업이 집중되어 있었고, 특히 호치민과 인근 Bin Duong, Dong Nai에 약 385,000명, 전체 섬유 의복 종사자의 60% 이상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 당시에는 섬유 의복 산업의 외국인 투자 유치가 활발하긴 했지만 호치민과 인근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013년에는 호치민 주변부와 북부 하노이로 섬유 의복 산업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북부의 하노이(4.0%, 0.21), Hai Phong(3.8%, 1.32) 뿐 아니라 Hai Duong(4.0%, 1.81), Thai Binh(3.0%, 2.15), Nam Dinh(2.3%, 2.02), Bac Giang(2.1%, 1.90), Thanh Hoa(2.2%, 1.24) 지역에 섬유 의복 업체들이 입지하게 되었고 각 지역은 50,000~90,000명 정도의 인력을 고용하였다. 남부는 호치민(23.2%, 1.10), Bin Duong(12.8%, 1.68), Dong Nai(12.5%, 2.13) 뿐 아니라 Tay Ninh(3.3%, 2.82), Long An(2.0%, 2.35), Tien Giang(2.4%, 2.46), Tra Vinh(1.3%, 3.13)의 인근 주변부로 입지가 분산 및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호치민에 약 521,000명을 비롯해 호치민과 인근 주변부에 전체 섬유 의복 종사자의 60% 이상이 있는 것은 큰 변함이 없었다. 섬유 의복 업종의 경우 북부보다는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의 집중이 크고 시기적으로 비중은 비슷했지만 기존 대도시의 비중이 감소하고 인근 주변부로 산업이 분산 확장되는 특성을 보인다. 초기에는 중심부에 입지해 있다가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 단순가공업체들은 지가와 임금이 낮은 주변부로 이동해 갔고, 새로 입지하는 업체들도 주변부로 입주한 것이다.

다음으로 전기전자 업종의 변화를 살펴보면(그림 11), 2000년에는 북부의 하노이(24.2%, 1.57), 남부의 호치민(38.7%, 1.57), Bin Duong(8.4%, 1.85), Dong Nai(19.5%, 3.85) 지역에 전기전자 산업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섬유 의복의 분포와 거의 유사한 것이었다. 호치민과 인근 Bin Duong, Dong Nai에 약 41,000명, 전체 전기전자 종사자의 66.6%, 하노이에 약 15,000명 24.2%, 즉 90% 이상이 이들 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여타 지역은 전기전자 산업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였다. 2000년대부터 외국인투자가 증가하였고 특히 베트남의 저렴한 여성노동력을 이용하려는 전기전자 관련 조립가공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북부에서는 하노이(15.9%, 0.85)의 비중이 감소하였지만, Hai Doung(4.9%, 2.21), Vin Phuc(2.5%, 2.54), Bac Ninh(22.1%, 11.10), Hung Yen(2.1%, 1.64), Ha Nam(2.1%, 2.43), Bac Giang(6.0%, 5.46) 등 하노이 주변부에 새롭게 전기전자 산업이 집적하게 되었다. 삼성전자가 입지한 Bac Ninh은 베트남 전체 전기전자 산업의 22.1%를 차지하면서 주요한 집적지가 되었다. 하노이와 항구도시인 하이퐁 사이에 있는 지역들에 전기전자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약 273,000명, 베트남 전자산업의 약 57%가 집중하게 되었다. 남부에는 2000년의 분포와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호치민(13.2%, 0.62), Bin Duong(13.6%, 1.79), Dong Nai(7.2%, 1.23)에 약 34% 정도 비중으로 오히려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전기전자 산업에 있어서는 북부 하노이와 주변 지역에 외국인투자가 집중하면서 중요한 전기전자 집적지로 자리잡았고, 남부 호치민과 주변부의 중요성은 감소하였다.

6. 결론: 한국-베트남 경제협력에 있어서 시사점

지금까지 한국의 베트남 해외직접투자 자료 분석을 통해 두 나라의 경제 및 산업 협력과 상호의존성이 커졌음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베트남 투자는 섬유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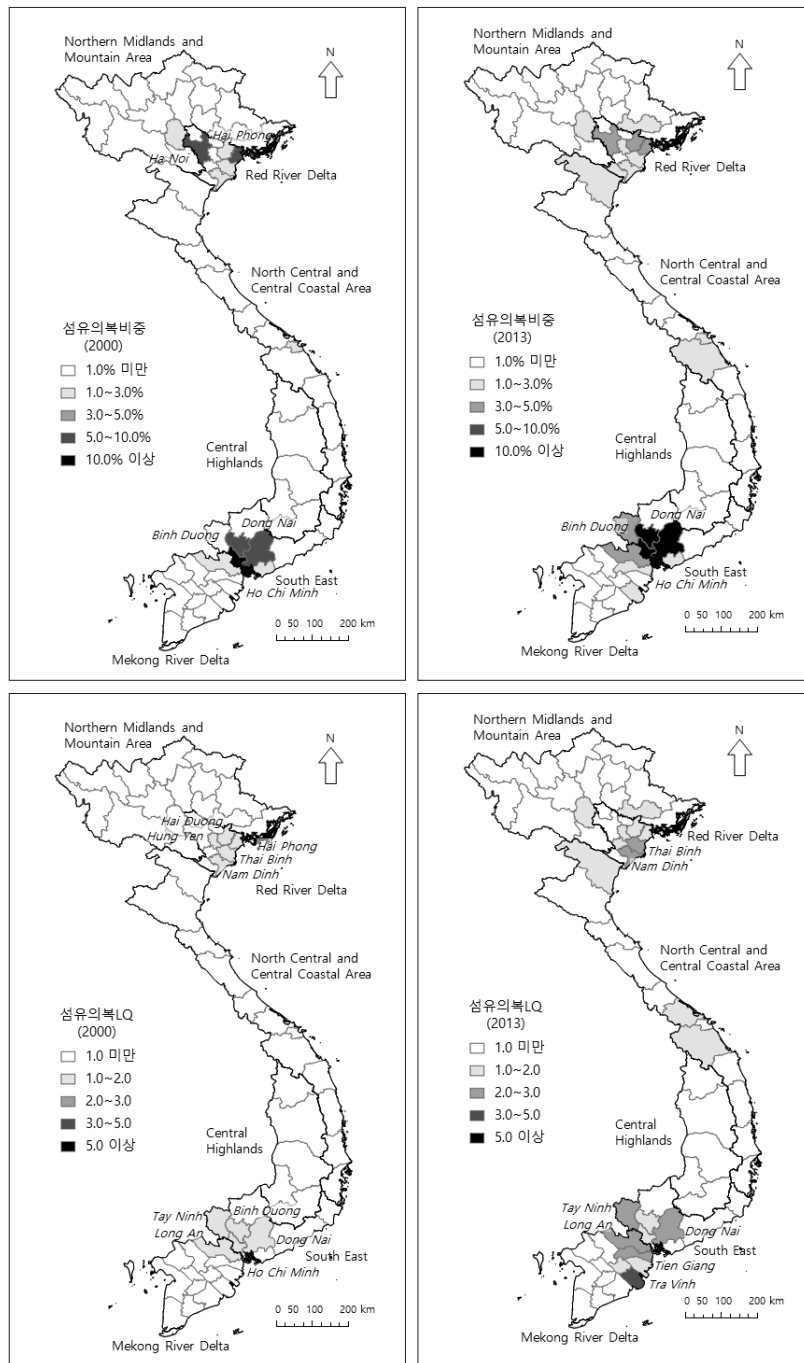


그림 10. 점유의복 산업의 지역별 비중(상)과 입지계수(하) 변화(2000년(좌), 2013년(우))

주: 지역별 비중과 입지계수 계산은 전체 제조업 대비 각 산업의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함. 지역별×산업별 데이터는 베트남 통계청에 요청해서 별도 수집함.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2000,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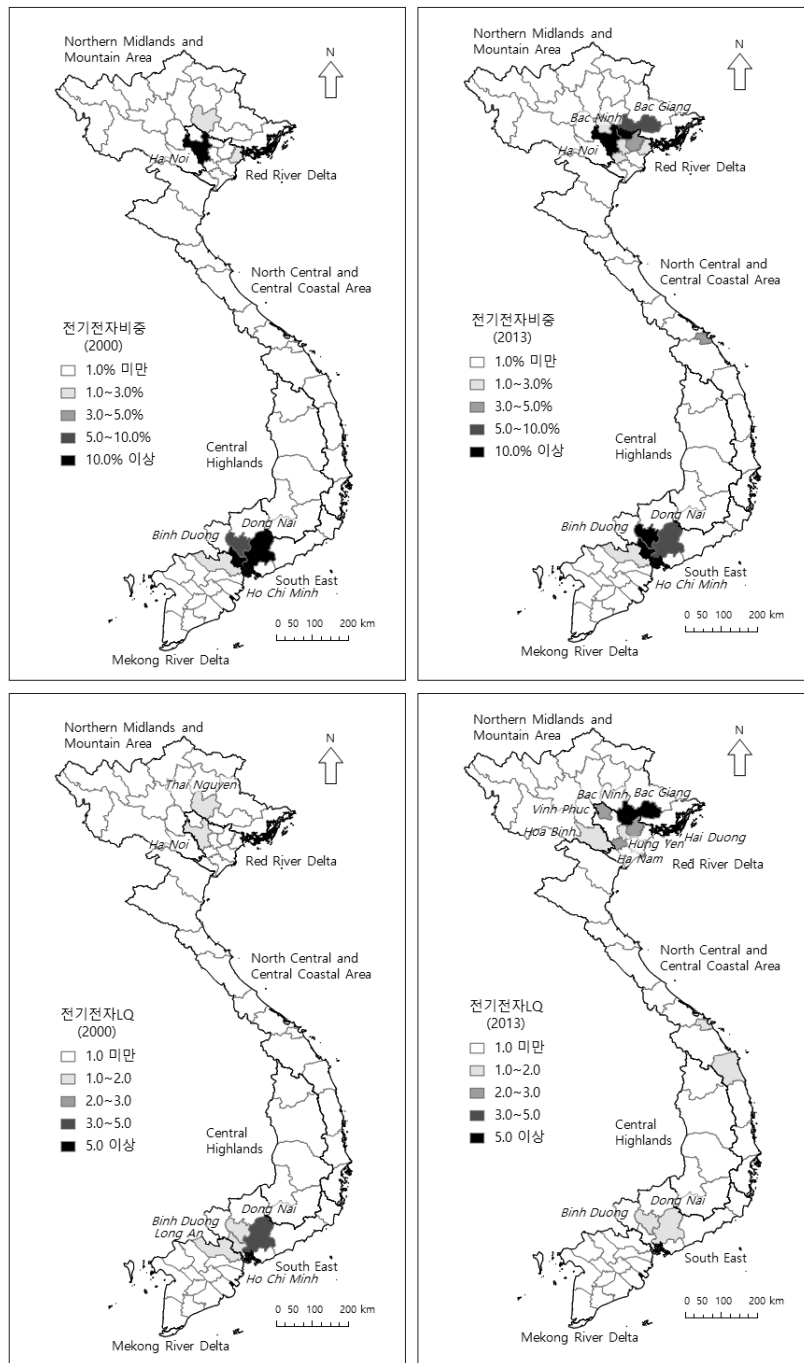


그림 11. 전기전자 산업의 비중(상)과 입지계수(하) 변화(2000년(좌), 2013년(우))

주: 지역별 비중과 입지계수 계산은 전체 제조업 대비 각 산업의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함. 지역별×산업별 데이터는 베트남 통계청에 요청해서 별도 수집함.

자료: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2000, 2013.

복 가공의 경공업 중심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점차 전기전자 조립산업 중심으로 변화해 왔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베트남의 산업구조와 지역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산업구조와 생산네트워크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베트남 경제협력에 있어서 유의점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베트남 투자의 최대 이점은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물론 한국에 비해서는 낮은 임금이 유지되고 있지만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하노이와 호치민 주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고 임금 상승이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많은 노동력이 모여들고 있어서 기업 입지에 유리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집중해 있어서 양질의 인력부족이나 임금상승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기존에 단순노동력 중심의 기업 진출이 이루어져왔는데, 이들 산업의 고도화 과정에서 숙련된 고급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훈련받은 취업자 비율이 20% 정도로 낮고, 하노이, 호치민 등 대도시와 농촌의 편차도 크다. 현재 베트남에 전기전자 등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산업의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문에서도 단순조립을 넘어서는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력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셋째, 베트남의 기반산업의 미비와 이에 따른 원부자재 조달의 문제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조사 결과, 베트남 내 부품 및 원자재 조달 비율은 28%에 그치고 있어서, 인도네시아(43%), 태국(5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KO-TRA, 2014b). 베트남에 존재하는 부품소재산업은 규모가 작고 저부가가치인 경우가 많아서 제조업 발전과 다국적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삼성, LG 등 한국 대기업들도 낮은 현지화율로 고민하고 있는데, 일례로 삼성전자의 현지 부품조달률이 36%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도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국내 협력업체와 외국업체로부터의 조달이 대부분이

라는 것이다(파이낸셜뉴스, 2015.8.16.일자). 베트남의 부품소재산업 발전과 기반산업 강화를 위한 베트남 정부와 한국 대기업의 공동 노력과 투자가 진행 중인데 이것이 성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베트남 진출에 있어 투자 부문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이상의 분석에서 한국의 투자가 제조업 부문, 그 중에서도 섬유·의복과 전기전자 부문에 집중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들 분야에서 산업의 고도화를 이룩하는 한편, 건설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문화, 민간교류 등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는데, 국립하노이대학에 일본 관련 단과대학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 베트남의 국가주도 연구개발(R&D)을 통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하노이에 설립 중인 베트남 KIST(VKIST) 설립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KOICA 등 기관을 통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베트남 진출과 투자에 있어서 각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통한 투자 지역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포스트차이나 전략의 일환으로 베트남 진출이 강화되었지만, 투자는 일부 대도시와 그 주변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고, 베트남의 여러 지역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미비하였다. 한국의 여러 기업과 단체들이 베트남의 주변부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 중부 등지에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지역 분석이 이루어지는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중국 남부에서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를 연결하는 물류망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투자대상국인 베트남의 산업구조와 지역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섬유산업 중심에서 전기전자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호치민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하노이 인근 지역에서 다국적기업 생산공장의 집적이 증가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

편, 이것은 투자모국인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
업지역 쇠퇴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생산의 효율
화와 생산기지 다변화를 모색하는 기업의 해외 진출
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대규모 산업시설을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
면서 한국의 산업화를 주도했던 구미, 창원, 울산, 거
제 등 공업지역의 쇠퇴와 재생의 문제가 심각한 경제
및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해외투자 증가와 국내
산업지역의 쇠퇴 문제의 연관성 측면에서 앞으로 많
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

- 1) 베트남의 경제현황 및 한국-베트남 경제협력과 관련된 연
구들은 경영·경제학, 국제통상, 지리·지역학 등의 분야
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소기업
의 베트남 진출과 하청생산 특성(김성호, 2011; 이승철,
2007; 지현철·이승철, 2007), 베트남 진출기업의 기업 활
동과 성과(Kim, 2006; Shin and Park, 2007; 김철·김인
구, 2008; 이제홍, 2012), 베트남 무역 및 투자 현황과 증
진방안(노승혁, 2001; 김정호, 2005; 이윤보 외, 2006; 김
희준, 2009) 등에 대한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 2)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 자료에서는 해외송금 전
외환당국에 사전 신고하는 신고금액과 실제 투자가 집행된
송금액인 투자금액을 별도로 표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분석하기 위해 투자금액
자료를 이용하였다.
- 3) 유형별 업체수는 국영기업 3,048개(0.75%), 비국영기업
388,232개(96.50%), 해외투자기업 11,046개(2.75%)이다.
- 4)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5,682천동(약 114,800원)으
로 전체 평균에 비해 낮는데, 섬유·의복 산업 종사자는 약
5,000~5,500천동, 전기전자 산업 종사자는 약 6,100~
6,900천동 정도이다. 정보통신 서비스업 11,723천동, 금융
보험 서비스업 16,240천동,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7,832
천동의 지식집약 서비스 업종에 비해 상당히 낮고, 도소매
업 5,651천동과 비슷한 수준이다. 7,000천동 이상인 지역
은 Quang Ninh, Ba Ria-Vung Tau, Ho Chi Minh, 6,000
천동 이상인 지역은 Ha Noi, Bac Ninh, Lai Cai, Thai
Nguyen, Binh Duong, Dong Nai이다.

참고 문헌

- 김성호, 2011, “한국 가구 제조기업의 국제화에 관한 연
구: 베트남 진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국제경영리
뷰, 15(1), 1-18.
- 김정호, 2005,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 및 투자협력 증진방
안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7(4), 435-453.
- 김철·김인구, 2008,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경쟁우위
요인과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2(1), 273-293.
- 김희준, 2009, “한국기업의 베트남지역 해외직접투자 패
턴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11(3), 125-144.
- 노승혁, 2001, “한국기업의 대 베트남 직접투자 방안에 관
한 연구,” 베트남연구, 2, 61-96.
- 동아일보, 2017.4.12.일자.
- 박동욱, 2008, 베트남 경제 분석과 향후 전망, 대한무역투
자진흥공사.
- 삼성경제연구소, 2013, “재도약을 준비하는 베트남 경제,”
SERI 경제 포커스, 414호, 삼성경제연구소.
- 이승철, 2007, “전환경제하의 해외직접투자기업의 가치
사슬과 네트워크: 대베트남 한국 섬유·의류산업
해외직접투자 사례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2), 93-115.
- 이윤보·이동주·노화봉·이병구, 2006, “우리나라 중소기
업의 동남아진출 전략: 베트남진출 중소기업 실
태조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28(2), 295-
328.
- 이제홍, 2012, “베트남 직접투자 기업의 진입결정요인과
성과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14(3), 185-
207.
- 지현철·이승철, 2007, “생산자본의 국제화 전략 및 입지
결정요인: 한국 대 베트남 섬유·의류 해외직접투
자 사례 연구,” 지리학연구, 41(4), 469-483.
- 파이낸셜뉴스, 2015.8.16.일자.
- KOTRA, 2014a, 2014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
- KOTRA, 2014b, 베트남 투자실무가이드,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 Dawley, S., 2010,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local and
regional development, in Pike, A., Rodriguez-Pose,
A. and Tomaney, J.(eds.), *Handbook of Local and
Regional Development*, Routledge, 394-412.

- Dunning, J. H., 1998, Location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a neglected factor?,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9(1), 45-66.
-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each year, *Statistical Yearbook of Vietnam*,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http://www.gso.gov.vn>).
- Kim, G.-S., 2006, Korean firms' choice of entry mode: empirical evidence from Vietnam,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10(2), 34-49.
- Menghinello, S., Propris, L. D., and Driffield, N., 2010, Industrial district, inward foreign investment and regional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0(4), 539-558.
-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Vietnam, 2014, *Foreign Direct Investment Enterprises in the Period of 2006-2011*,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http://www.gso.gov.vn>).
- Shin, K.-H. and Park, M.-C., 2007, A study on the local management strategy of Korea light industry firms in Vietnam: focused on the factors of cultural environment in Hanoi,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11(1), 55-75.
- Yang, C., 2009, Strategic coupling of regional development in Global Production Networks: redistribution of Taiwanese personal computer investment from the Pearl River Delta to the Yangtze River Delta, China, *Regional Studies*, 43(3), 385-407.
- 통계청, 2015a,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is.kr>
- 통계청, 2015b, 전국사업체조사, <http://kosis.kr>
- 한국수출입은행, 각년도, 해외투자통계, <http://stats.koreaexim.go.kr/odisas.html>
-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Vietnam, each year, Foreign Investment data, <http://www.mpi.gov.vn>
-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국제무역통계, <http://www.wto.org/statistics>
- 교신: 구양미,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이메일: yangmi@snu.ac.kr, 전화: 02-880-9025)
- Correspondence: Yangmi Koo, Department of Geography, Colleg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e-mail: yangmi@snu.ac.kr, phone: +82-2-880-9025)
- 최초투고일 2017. 6. 22
- 수정일 2017. 8. 10
- 최종접수일 2017. 8. 22